

“벼랑끝 지방 부동산 시장 맞춤형 부양책 없인 회복 불능”

광주·전남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세제 지원·PF대출 개선 등 촉구
“수도권 회복 속 지방 침체 지속…갈수록 깊어진 양극화 해소 필요”

광주·전남 주택 업계가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부양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와 경기둔화, 주택 수요 급감이 겹쳐며 지방 주택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세제·금융·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2일 보도자

료를 내고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 광주·전남은 비롯한 지방 주택·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시장이 인구 구조적 감소와 실물경제 장기 침체가 맞물려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그나마 올해를 기점으로 일부 반등의 여

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주택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 경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가능성 등을 긍정적 변수로 꼽았다.

이같은 요인이 맞물리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전남 주택 시장에도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협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계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 주택

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 개선, 공공 택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방식 개선,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확대와 이자율 인상 유예 등을 지원 정책으로 제안했다.

협회는 특히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개정 이후 감정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해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근 급부상한 광주시·전

남도 행정 통합 시대에 대비한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민간 투자를 끌어낼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경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지역 주택 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지금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회도 올해 ‘하자 제로’와 안전 최우선을 지향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건설사·타 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색다른 출판기념회…기업 부스에 시민들 발길 몰렸다

강기정 출판기념회 신선한 시도
유망기술기업 6개사 팝업스토어
로봇 안내·닥터케어 체험 등 눈길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1일 열린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장에서 통상적인 정치 행사장 풍경과 달리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부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이 자사 제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판기념회를 기업 홍보와 제품 실증(테스트)의 장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지역 산업체에 따르면 전날 열린 출판기념회장에서는 광주시 등에서 지원받거나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망 기술기업 6개사가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시연과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여 기업은 (주)넷온, 위치스, 쉐어플랫, 메가웍스, 닥터케이, 익토닉스 등 총 6곳이다. 이들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직접 제품을 써보며 하며 시장 반응을 살피는 실증 기회로 삼았다.

특히 행사장 곳곳을 누비는 인공지능(AI)로 봇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쉐어플랫’이 선보인 자율주행 무인로봇은 혼잡한 인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며 길 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시민들의 걱정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형 부스도 인기였다.

‘메가웍스’는 신체 지수를 체크하고 분석해 스트레스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레스 사워실’을, ‘닥터케이’는 피부 진단기를 통해 맞춤형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1일 열린 강기정 시장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율주행 무인로봇이 인파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 <쉐어플랫 제공>

케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옵토닉스’ 또한 체중계 및 체형 분석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넷온’은 얼굴 인식 및 자동 모자이크 기술이 적용된 AI 카메라를 통해 스포츠 관람 운영 효율화 기술을 시연했으며, ‘위치스’는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 얼굴에 캐릭터를 합성하는 이색 콘텐츠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팝업스토어가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인 박람회와 달리 다양한 현장층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접할 수 있어 잠재 고객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세를 과시하는 정체화된 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돋고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참여 업체들의 설명이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딱딱한 행사일 줄 알았는데 지역 기업들의 신기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 것은 매우 신선한 시도”라며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에서도 이처럼 지역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성장을 돋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출판기념회 특성을 활용해 기업 알리기에 나선